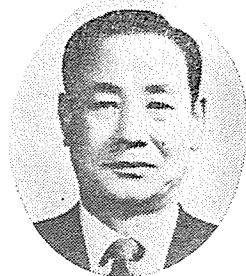


大韓鑛山學會편

## 資源開發에 中樞的 役割

太陽을 등지고 地下에서 不徹晝夜

1,700萬屯 石炭生產에 拍車



洪準箕 會長

우리 學會가 正式으로 發足한 것은 1962年, 그當時는 財政面, 學會誌 原稿 等에 있어 여러 가지 難點이 너무도 많았다. 그러나 여러 會員들의 꾸준한 努力과 協調로 이 어려운 困境을 克服하여 今日에는 學會로서 完全한 기틀을 翳固하게 만들어 가장 堅實한 學會로 成長하게 本身을 스스로 自負하는 바이다. 特히 大韓鑛山學會誌의 內容이 充實함은 外國에서 높히 認定하고 있다.

學會活動中 가장 重要한 것은 學術 및 技術의 研究이다. 이를 助成하기 為하여 本學會에서는 7個 分科委員會를 設置하여 探查, 採礦, 選礦, 管理 等에 關한 研究가 촉착 進行되어 우리나라 資源開發에 中樞的 役割을 하고 있다.

石油波動 以來 世界의 關心은 資源의 開發 및 確保에 集中되고 있다. 特히 鑛物資源이 不足한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이에 對한 關心과 期待가 더욱 크므로 우리 學會 會員에 負荷된 使命은 重且大的 것이다. 그러므로 會員들은 이 點을 뼈저리게 느끼고, 머리를 짜내고 힘을 다하여 太陽을 등지고 地下에서 不徹晝夜 뛰고 있다.

그 結果 한 例를 들면 石炭生產量이 1974年에는 1,500萬屯을 突破하였고, 1975年에는 1,700萬屯을 無難히 生產하리라고豫想된다. 1,700萬屯 以上의 石炭 生產은 不可能하다고 하던 것이었다. 이 石炭은 家庭 燃料 및 發電用으로 國內에서 消費되고 其他 鑛種을 外國에 輸出하여 外貨를 獲得하고 있다. 그러므로 科技總傘下 여러 會員들 中에서 가장 큰 自負心과 使命感에서 奉

仕하고 있는 會員은 우리 學會 會員이라고 敢히 말할 수 있다.

우리 學會는 研究 發表 및 親睦을 圖謀하기 為하여 春秋 2回에 걸쳐 學術發表會 및 總會를 갖는다, 秋期總會는 會員이 많이 集中된 各地方現場에서 順次的으로 열리게 된다. 또 會員의 勞苦와 研究에 報答하고 激勵를 주기 위하여 功勞賞, 學術賞, 技術賞을 制定하여 每年 施賞하고 있다. 學術上 및 技術上의 問題點을 解決하기 위하여 年 4~5次에 걸쳐 特別세미나를 열어 여러 가지 問題點 打開에 努力하고 있다.

우리 學會는 美國, 中國 및 日本, 濟洲 等의 學會와 緊密한 紐帶와 技術 交流를 갖기 為하여 우리 代表를 派遣하고 外國 代表를 招請하여 講演會를 갖고 있다. 明春에는 上記國 以外에 Peru, Bolivia, Argentina 等의 學會人事도 招請할 豫定이다. 以外에 隨時로 極東地方를 旅行中인 外國學者, 技術者를 暫時 招請하여 特別講演會도 갖기도 하여 外國의 세로운 技術을 會員들에게 紹介하기도 한다.

現代는 確實히 資源時代이다. 따라서 資源의 確保가 緊要한 것은 再言을 不要하는 바이다, 都是 資源이란 鑛物 等과 같이 有形의 것도 있으나 頭腦의 活動같이 無形인 것도 있다. 有形의 資源도 重要하나, 有形資源이 不足한 우리 나라에서는 頭腦를 開發하여 無에서 有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더욱 重要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 學會의 使命은 더욱 크다고 믿는 바이다.

— 59 —